

주부신행담

백일홍 나무처럼 ①

지 난 여름 한창 더울 때 전남 보성에 있는 백제고찰 대인사로 위빠사나 수련을 하며 일동안 다녀왔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법당앞에 당당하게 서있는 백일홍나무였다. 나중에 들으니 3백년이 넘는 고목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한참동안이나 눈길을 주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내 곁에서 항상 깨달음의 죽비를 아끼지 않으신 스님 시어머니(김옥영)이 생각났다. 늘 단아하면서도 기품있고 상냥함을 잃지 않고 계신 형님은 저 백일홍 나무처럼 당당하면서도 울긋불긋한 색깔로 내 삶의 귀감이 되어주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결혼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전혀 몰랐다. 친정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부모님은 신앙이 깊었고 나는 고등학교도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려다가 시어머니의 반대로 예식장에서 목사님을 주례로 모셔 식을 치렀을 정도로 기독교와 밀착돼 있었다.

결혼후에도 친정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교회에 나갔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와 교회 갔다온 날은 이상하리만치 시어머니와 와 계셨다. 집에 다니셨던 시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보시고는 언짢은 얼굴이 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 그렇게 3년 정도 교회에 나갔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돌아가신 분께 절을 할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는 반성이 자잘로 들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차츰 교회 다니

는 것이 싫어졌다. 그러던 중 장남인 우리가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 사누이인 형님께 자주 의논을 드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집안인 친정과 불교집안인 시댁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게 되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달라짐이 없는 친정을 보면서 나는 차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변모를 보인 내게 부처님의 현상은 자비와 깨달음을 일깨워주시는 분

차 현전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놓고 열어보일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한 친구같은 남편과 8년 연애 끝에 지난 81년 결혼을 했다. 외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고 행복감을 느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흐른 87년 여름,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남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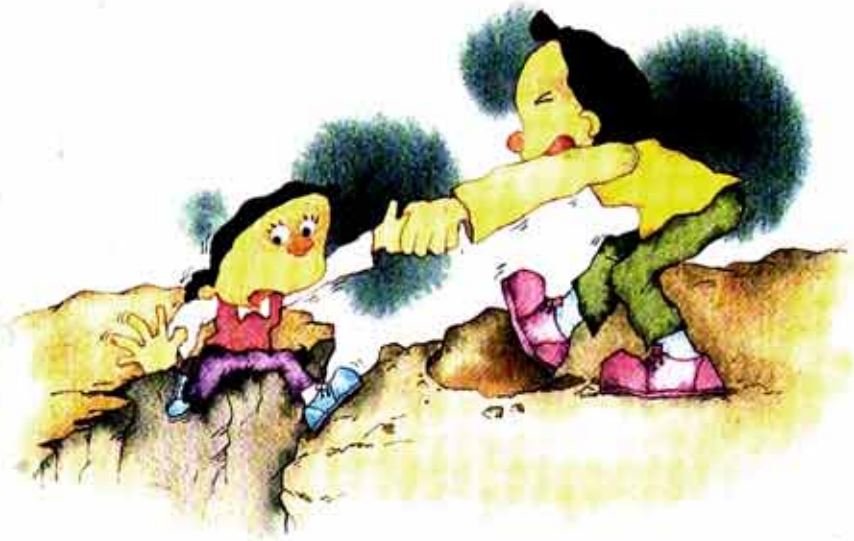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마음이 고요하면 화가 나지않아

이 형님이다. 형님으로 인해 나는 불교와 친신으로 만나게 됐고 그 심오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종교에 푸욱 빠져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최근까지만 해도 불교로 나를 인도해준 형님의 그 마음을 울게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지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형은이라 생각한다. 누구는 일생에 걸쳐 형님도 만나기 힘들다는 최고의 인연을 두사람이나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 두사람은 나의 남편과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다.

유아진 시인의 <지란지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간, 생후 8개월된 조카가 우리집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나도 어린 자식 2명을 키우고 있었고 또 나는 하느라고 했어도 어머니 눈에는 허점이 많이 보인 것 같다.

며느리로서는 흠잡을 데 없다고 만족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내가 큰엄마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시며 조카에게 자식보다 더 사랑을 주려고 끊임없이 요구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대하나 감시까지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나의 자식보다는 사랑이 더 가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면 성격이 급하신 시어머니는 아단치다 못해 때로는 심한 욕설도 하셨다. 그러면 참을성 없는 나 역시 솔직히 반박하고 못견

뎠다. 나는 서운함과 원망에 못이겨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꾸짖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럴 때면 형님은 어 이라고 못난 율케에게 차분히 가르쳐주곤 했다.

누가 아무리 화나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끄달리지 말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접수시키지 않으면 화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조언해 주셨다. 나의 마음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니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라고. 우물청소를 하려고 해도 저 아래 암굴까지 저어 깨끗이 퍼내야 맑은 우물이 되듯이 내 속에 있는 암금을 저어내는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원망과 미움만 잔뜩 쌓여있던 내게는 당시 그러한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형님을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창밖을 날아주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존경심이 생기다가도 그 마음은 잠시뿐... 미움은 미움을 받고 원망은 원망을 받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

내가 진실로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귀의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여름 갑종호우가 쏟아지던 날, 형님과 함께 춘천 청령사를 참배하고 나서부터이다.

폭우가 700mm도 더 온 날 청령사가는 길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생전 처음으로 삼과 죽의 갈림길에 섰다는 무서우면서도 극명한 순간을 체험해 보게 되었다.

전날 울산에서 서울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서울에 도착해보니 엄청난 폭우로 변했다. 도저히 청령사로 참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떠나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떠나지 하며 무심히 말씀하시는 거였다. 나는 형님의 그 멋진(?) 말 한마디만 믿고 청량리역에서 첫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창밖을 보니 비가 심해졌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형님과 같이 사할순례를 떠나는 것이 그저 좋았다.

춘천에 도착한 후 청령사로 연락 해 보니 산사태가 나서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형님과 나는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갔다. 산 입구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다리 앞에 산사태가 나서 복구 중이었다. 이쪽과 공사가 끝나고 형님이 건너시고 내가 건너려고 원발을 디디고 막 오른쪽을 내딛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벨속으로 빠져 뿔러 들어갔다. 그 순간 형님이 내 손을 잡아주어 어떻게 다리위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다리위로 잡아 올랐다.

"아... 죽음이란 이렇게도 다가오는구나"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래도 우리는 청령사를 향해 올라갔다. 길 왼쪽 산에는 휴양동이 ছিল. 오른쪽 계곡은 무서운 연기같은 모습의 폭우가 끝없이 쏟아져 내려왔다. 산장의 아주머니는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라고 말하며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고 산 곳곳의 민박집에는 비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계속)

서희순(울산광역시 동구 전화 3동)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절음을 줍니다.



-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 ▶ 광경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전자와 자체 제거기능(특히 제0157651호)설치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팬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원전 예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쓰시나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동메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침대의 **리빙스톤** (옥스톤)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02)424-9427 / 2203-7821

-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장파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원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상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동판은 원적외선인지, 그리고 수입국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3,300관 대범종 타종

■ 재질

- 동 13톤
- 주석 25톤
- 금 50냥
- 은 7kg
- 인 45kg

(전기로 합금)

鐘宗社

☎ 02)725-0878